

미술 시장의 블루칩, 사진

마음과 눈이 즐거워지는 투자

2006년 2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에드워드 스타이켈의 1904년작 <연못과 달빛>이 사진 작품으로서는 세계 최고가인 30억 원에 판매됐다. 그리고는 이듬해 2월, 안드레 구르스키의 2001년작 <99센트 II>가 런던 소더비에서 약 34억 원에 팔리며 이전 기록을 갱신했다. 불과 1년 사이 생겨난 이 기록들은 미술 시장에서 사진의 위치가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두 작품의 제작 시기가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에디터 하유정 글 송수정(사진 전문 기획사 에디션 대표) 사진 제공 트렁크갤러리(02-3210-1233)



상 생존하지 않는 20세기 초까지의 빈티지 프린트는 확실히 투자 가치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매를 통해 주로 거래되었던 사진 중에는 빈티지 프린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드레 구르스키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그는 베른트 베허와 힐라베허 부

부 20년간 뒤셀도르프 대학에 재직하며 길러낸 소위 베허 학파 1세대로 통한다. 안드레 구르스키 외에도 토머스 루프, 칸디다 회퍼 등 베허 학파 작가들은 현재 미술 시장에서 떠오르는 스타들이다. 특히 자본주의와 소비사회를 상징하는 장소를 냉정하게 접근한 구르스키는 베허 학파의 유형학적 사진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르스키 사진의 외형적 특징 중의 하나는 작품의 크기다. 폭이 2m가 넘는 작품 속에서 의도적으로 원근감을 없애고 풍부한 색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필연적으로 포토샵의 도움을 받았다. 스타이켈의 작업과 달리 철저한 디지털 시대의 산물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연못과 달빛>은 이미 사진사적으로 검증된 빈티지 프린트로서의 가치를 보다 많이 인정받은 셈이다. 빈티지 프린트란, 통상 오리지널 프린트로 통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작가가 흑백 촬영 후 3~5년 안에 손수 인화했거나 작가의 감독 아래 전문가가 인화한 작품을 말한다. 물론 작품에 작가의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한다. 무한복제 가능성으로 인해 희소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술 시장에서 사진이 외면당해온 사실을 감안한다면 작가가 더 이

사실 디지털 기술은 사진을 현대 미술의 총아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아직 까지도 많은 이들이 단순히 사진기라는 기계로 찍은 사진을 소장하기 위해 돈을 쓴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누구나 생산해낼 수 있고, 언제든지 필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진이 과연 예술일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와 갤러리는 에디션 개념을 두어 작품의 희소성을 지켜내고자 했다. 같은 필름에서 총 5점 혹은 10점 등 제한된 프린트만을 만들어 일련 번호를 매기고 작가가 사인함으로써 희소성을 둔 것이다. 에디션이 적으면 적을수록 작품값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들어 현실과 가상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듯 예술에서도 실재와 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동시에 일단 사진을 찍은 뒤 모



니터에서 이미지를 합성하고 다시 프린트하거나, 비디오 화면을 캡처해 포토샵으로 작업한 뒤 프린트로 뽑아내는 등 사진의 복제 기술이 무한대의 표현 방법을 낳기 시작하면서 회화와 사진의 경계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안드레 구르스키의 작업이 소더비 경매 당시 사진이 아닌 현대 예술 카테고리 분류돼 출품된 것도 이런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이 사진이 예술이 아니냐에 대한 논쟁의 의미 없음을 지적하면서, 대신 사진의 발명이 예술의 전반적인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은 탁월한 분석이었다.

지난 6~7월, 사간동에 위치한 사진 전문 갤러리 트렁크에서 열린 <환영구 성 그리고 판타지> 전에서는 최근 사진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작가의 작품이 소개됐다. 회화를 전공한 유현미는 자신의 작품이 정물화처럼 보이도록 사물과 공간에 석고와 유화 물감을 덧칠한 뒤 다시 사진으로 촬영해, 실재를 대상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회화 작품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도록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설치와 회화, 사진이라는 장르를 독창적으로 배합해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독특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원성원은 자신의 주변에서 채집한 일화를 바탕으로 사진 한 장에 이야기를 재구성해낸다. <강아지 마을>은 골목 풍경과 버려진 강아지들을 찍은 후 일일이 합성해 거대한 판타지의 세계를 일궈내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 사진이 현대 미술의 중요한 표현 기법으로 대두되면서 사진이 '미술 시장의 블루칩'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술 시장도 투자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화보다 상

대적으로 저평가된 사진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사진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는 3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 2000만 원대까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처럼 장르 파괴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사진들만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엘튼 존이 작품을 구매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배병우의 <소나무>나 중간 톤의 맛있는 빛에 의지해 사물을 기록해내는 민병현의 스트레이트한 사진 작업 등도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미술 시장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작가만도 김아타, 고명근, 구본창, 이정진, 김도균, 배준성, 박형근, 정연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제각기 독특한 작업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구매 앞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미술사와 예술 시장을 꿰고 있는 전문 컬렉터가 아니고서는 구매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작가의 생명력을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동안의 전시 경력과 소장처는 어디인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에디션 관리를 잘 해왔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며, 믿을 만한 갤러리 몇 군데를 단골로 두고 거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갤러리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권하는 작품과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 만약 이제 막 작품 구매를 시작하는 초보 컬렉터라면 일단 자신의 눈을 믿고 좋아하는 작품을 구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무리 미술 시장이 투자의 논리 따라간다고 하지만, 즐기지 않고서 투자만 한다면 부동산 투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장한 이의 마음과 눈이 즐거워야 한다. ☺